

# 베일벗은 '킹덤' 세계적 인기 끝까

넷플릭스 첫 한국 드라마  
김은희 극본·주지훈 주연  
총 6부작 내년 1월부터  
190여개국 동시 방영



싱가포르 마리나 샌즈 베이에서 최근 열린 '넷플릭스 시 왓츠 넥스트: 아시아'에서 넷플릭스의 첫 한국 드라마 '킹덤' 제작에 참여한 김성훈(오른쪽부터) 감독, 김은희 작가, 배우 주지훈·류승룡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연합뉴스>

"이 스토리가 드라마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만화 이야기('신의 나라')로 먼저 만들었는데 넷플릭스를 만나 드라마로도 실현됐네요."

넷플릭스의 첫 한국 드라마 '킹덤' 대본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는 최근 싱가포르 마리나 샌즈 베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 왓츠 넥스트: 아시아'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킹덤'은 15~16세기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죽은 왕이 되살아나자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가 조선의 끝에 당도, 굶주림 끝에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김 작가는 "넷플릭스와의 협업, 영화감독(김성훈)과의 협업 등 모든 게 처음이라 초반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신선한 작업이었다. 권력과 배교품이 어떻게 역병에 작용했는지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측에서 전날 발표한 시즌2 제작과 관련해서는 "대본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넷플릭스 보안 정책 등의 이유로 그 이상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최근 카페털 시어터에서 '킹덤' 1·2회 상영회를 개최했다. 상영회는 아시아의 수십 가지 오리지널 시리즈 중 가장 힘을 주고 싶은 단 한 편을 골라 이뤄지는 데, 그만큼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일본,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각국에서 모인 취재진에 조선 시대 고즈넉한 궁궐 안팎 풍경 속에서 등장하는 격렬한 몸짓의 쯤비들은 말 그대로 '충격'으로 다가간 듯했다. 생경한 미국의 옛 풍경에 쯤비가 만나 제대로 시너지를 냈다.

서사를 쌓는 데 주력한 1부 후에는 '예의를 차린' 박수가 나왔지만 쯤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2부 상영 후에는 외신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외신기자들은 저마다 "완벽", "완전히 미쳤다", "잔인하지만 재밌다"는 말을 쏟아냈다.

인도에서 온 오렌지쥬스의 카리사 아이리스 랜드 기사는 연합뉴스에 "1부에서는 비교적 잔잔하다고 생각했는데 2부에서는 엄청난 몰입감을 느꼈다. 쯤비들이 충격적 일만큼 잔인하게 그려졌는데 신선한 흡입력이 있었다"며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잔인하다는 평가에 대해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썼다기 보다는 누구나 아는 쯤비에 대한 설정, 그 리얼리티와 개연성을 살리고자 했다"며 "보통 드라마에서는 그런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넷플릭스에선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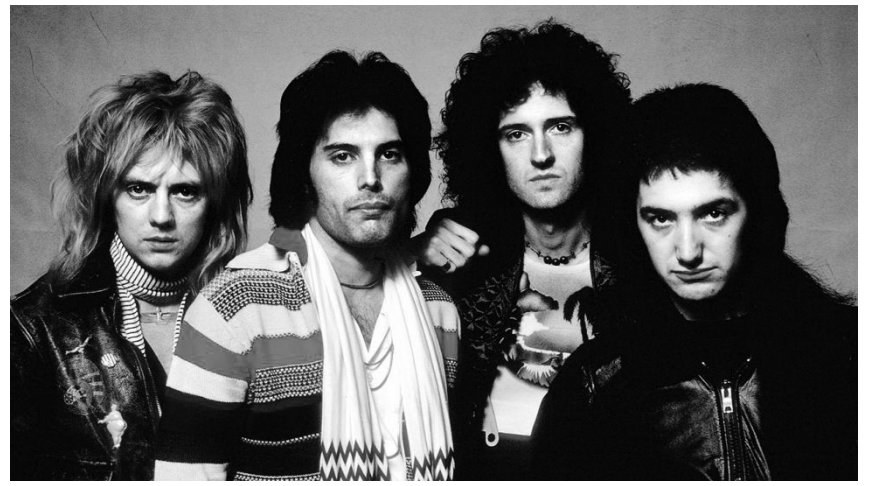
'터널' 등 영화를 만들다 처음 드라마 연출에 도전한 김성훈 감독 역시 "넷플릭스가 무한한 창작의 자유를 줬다"며 "내용적

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 편짜리 영화를 찍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며 "사극 속 쯤비가 특수성, 지역적 한계성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주인공 왕세자를 연기한 주지훈은 "넷플릭스와의 첫 작업이라 연기에 더 힘썼다"며 "상영회 후에 넷플릭스 로고가 뜨니 신기했다"고 말했다.

류승룡은 "힘든 한국 영화 3편 정도를 찍은 느낌"이라며 "저도 포스터를 아직 못 봤고 영상도 어제 처음 봤을 정도로 넷플릭스 보안은 대단하더라"고 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킹덤'과 관련한 소소한 정보까지 모두 방영 전까지 '장기 엠바고'(보도금지 혹은 비유)에 부쳤다.

총 6부작으로 제작된 '킹덤'은 내년 1월 25일 190여개 국에서 동시 방영된다. 자막은 27개국 언어로 제작되며 더빙도 12개국 언어로 이뤄진다. 청소년 관람불가. <연합뉴스>



##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 ... 음원차트 '퀸' 열풍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에 힘입어 국내 음원차트에서도 퀸(사진) 열풍이 뜨겁다.

13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음원사이트 멜론 팝 차트에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는 2위, '아이 워즈 본 투 러브 유'는 10위,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는 13위, '위 아 더 챔피언스'는 15위, '위 윌 록 유'는 18위를 차지했다. 또 '돈 스톱 미

나우'는 22위, '섬바디 투 러브'는 28위, '라디오가가'는 32위, '투 머치 러브 윌 킬 유'는 45위, '아이 윌트 투 브레이크 프리'는 62위, '언더 프레세'는 68위, '킬러 퀸'은 79위, '어나더 원 바이즈 더 더스트'는 99위에 올랐다.

아울러 영화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앨범은 예스24, 인터파크 OST 부문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퀸의 결성과 슬한 영국 탄생 뒷이야기, 작곡한 리드 싱어 프레디 머큐리를 비롯한 멤버 간 갈등과 화해를 담았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2일까지 누적 관객 수는 195만2589명으로 200만명 고지가 눈앞이다. <연합뉴스>

## 하늘로 간 '슈퍼 히어로' 마블의 전설 스탠 리 별세

스파이더맨·아이언맨... 마블코믹스 시대 열어

수많은 슈퍼 히어로 캐릭터를 만들어낸 미국 만화업계 거물 스탠 리(사진)가 1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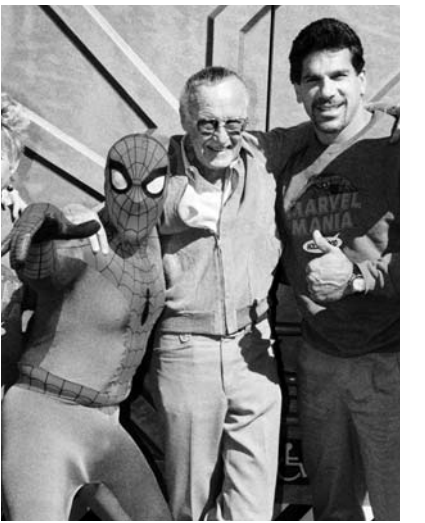
스탠 리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의 시더-시나이 메디컬센터에서 숨을 거뒀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스탠 리의 유족이 공식 확인했다. 올해로 96세인 그는 여러 지병을 앓아왔다. 최근 건강 악화로 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는 잭 커비(1917~1994) 등과 함께 스파이더맨·헐크·다터 스트레인지·판타스틱4·데어데블·블랙 팬서·엑스맨·아이

언맨·토르 등 수많은 슈퍼 히어로 캐릭터를 만들어낸 인물로 유명하다. 본명인 '스탠리 마틴 리버' 보다는, 필명인 '스탠 리'(Stan Lee)로 더 잘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스탠리 웡'이라는 별명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1922년 뉴욕 맨해튼의 루마니아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39년 우연한 기회에 타임리 코믹스(마블 코믹스 전신)에 입사하면서 만화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편집 조수로 일을 시작했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만화 원작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마블 코믹스를 대형 멀티미디어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마블 코믹스 편집장과 마블 엔터테인먼트 사장 등을 역임한 리는 1994년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월 아



이스너 어워드'를 수상했고 1995년 잭 커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2008년에는 예술가들의 최고 영예인 '미국 예술 훈장'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미야
9	30 KBS 뉴스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내 뒤에 테리우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공룡 메카드	00 모두 하우스(재)	35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2018 SBS 창사특집대기획 운인가 능력인가 경쟁력 전쟁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	00 스페이스 박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35 미니디큐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승터	00 죽어도 좋아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흥부외과 :심장을 옮긴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2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신영의 TMI 언더나인틴(재)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운 떡볶이불고기과 브로콜리 된장무침>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지중해 맛기행 3부 스페인 맛에 빠지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꼬마버스 타요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독도채널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재)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요몽3	20:40 세계테마기행 <전쟁과 평화의 땅, 북 코카서스를 가다>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불타오르네 3부 단풍사용설명서>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EBS 다큐프라임 <긴팔원인 1부 음악 본능>
09:30 원더볼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극한직업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초대석
10:30 한국기행(재)	16:30 말랄라 뿌우(재)	

### 11월 14일(음 10월 7일 庚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4일(음 10월 7일 庚戌)
<p><b>子</b> 36년생 지나친 집착은 심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48년생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60년생 일의 경중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라. 72년생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84년생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9, 91</p>	<p><b>午</b> 42년생 갑자기 허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54년생 당면했을 때 한계를 분명히 해 두자. 66년생 뻥치 않으면서도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다. 78년생 뜻밖에 나타난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 90년생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8, 44</p>
<p><b>丑</b> 37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확실하게 뜯어 고치는 것이 낫다. 49년생 기교가 수의 창출의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61년생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73년생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85년생 지나치다면 판국을 깨면서 해로운 판 더한다. 행운의 숫자 : 47, 11</p>	<p><b>未</b> 43년생 가벼운 언행은 공든 탑을 무너지게 한다. 55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67년생 부분에만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체를 파악 하자. 79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 91년생 당연시 하여 왔던 것 속에 의외의 평정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8, 92</p>
<p><b>寅</b> 38년생 계속되는 형세 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50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62년생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느니라. 74년생 관리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6년생 노파심을 버리고 편하게 지내도 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50, 50</p>	<p><b>申</b> 44년생 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차질이 없으리라. 56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68년생 단속과 절제가 절실한 때이니라. 80년생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환기에 와 있다. 92년생 인간은 쥐어 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아니니라. 행운의 숫자 : 62, 49</p>
<p><b>卯</b> 39년생 큰일 나는 수가 있다. 51년생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라. 63년생 가닥이 잡히면서 운과 이 드러날 것이다. 75년생 힘들게 진행 되겠지만 결과는 알랄 것이다. 87년생 불안전했던 원인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 36, 02</p>	<p><b>酉</b> 45년생 하찮게 여겨왔던 것 속에서 기회의 열쇠가 있다. 57년생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69년생 규모의 대소와 상관없이 중차대한 일이다. 81년생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교류가 있을 것이다. 93년생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12, 37</p>
<p><b>辰</b> 40년생 거리를 두었을 때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52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 하자. 64년생 기탄없이 제기하라. 76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8년생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73</p>	<p><b>戌</b> 34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46년생 어둠이 사라지면서 희망찬 미래가 밝아 온다. 58년생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70년생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82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니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3, 59</p>
<p><b>巳</b> 41년생 폭 넓은 시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옳아이다. 53년생 관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65년생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해 봐야 한다. 77년생 간단 하면서도 명료함이 생산적이다. 89년생 노력하지 않는다면 밀릴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5, 21</p>	<p><b>亥</b> 35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닦는 입장이 된다. 47년생 무난하게 진행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59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71년생 굶어서 부스럼 내지 말고 잠자코 있자. 83년생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9, 30</p>